대(對)북 군사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1)]

이태림 | 前 국립외교원 교수 | taerim0212@gmail.com

Ⅰ. 머리말

2024년 10월과 11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관계에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11월 6일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고 전쟁 종식을 공언해 온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향배에 커다란 변수가 등장했다. 최근 북・러 관계의 전개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장기화에 기인한 바가 크기에 트럼프 당선이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나아가 북・러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편 지난 8월 초 우크라이나가 공격하여 일부 점령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러시아가 북한군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들어섰다. 우크라이나 측은 11월 5일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사이에 첫 교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당국은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위해 동 지역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 유럽 학자가 유럽 대륙에서 아시아군이 전투에 참여한 최초의 사건으로 상징성이 크다고 지적한바 같이, 이번 북한군 참전이 유럽인들에게 주는 충격은 적지 않은 듯하다.

아직 북한군과 러시아군 간의 언어 장벽과 지휘체계 혼란, 북한 병사들의 실전 경험 부족 등 장애 요인이 많다고 알려져 북한군이 앞으로 러시아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1) 본 고는 외교안보연구소 2024년 8월 14일 자 발간 주요국제문제분석「최근 러시아의 대북정책 평가 및 전망: 러시아 내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중 군사협력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대한 회의적 시각과 함께 북한군의 희생이 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번 파병을 통해 북한이 얻게 될 전투력과 군사기술 경험 및 지식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 지난해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북・러 관계가 이번 북한군의 파병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단계가 나아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동 사안의 의미와 파장은 상당히 클 수 있다.

북한군의 쿠르스크 지역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던 10월 25일 러시아는 지난 6월 북한과 체결한 신조약에 대한 국내 비준 절차를 마쳤다.[2] 같은 날 브릭스(BRICS) 정상회의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푸틴이 러시아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 부인하지 않으면서 비준된 북한과의 조약에는 상호 군사원조 관련 조항이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그 실질적 성격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사실상 동맹조약으로서 그 역할과 위상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언급했다. 11월 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 군사 작전 초기부터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러시아 군대와 러시아 인민의 거룩한 전쟁을 굳건히 또 강력히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북한은 "러시아 군대와 러시아 인민의 거룩한 전쟁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라브로프도 군사 지원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조약의 체결 덕분에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특히 양국 군과 정보국 사이에 매우 긴밀한 접촉 라인이 구축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처럼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군의 쿠르스크 지역 파병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협력을 공식화하는 모양새이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또는 종전 타결까지 예상되는 치열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 점령 전투가 지속하는 동안, 북・러 간의 군사적 협력과 결속은 한층 노골화되고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러시아가 대북 군사협력의 수위를 어느 선까지 가져갈 것인지에 관한 질문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쇼이구(Sergei Shoigu) 국방장관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 내에서는 북한과 군사협력의 정당성과 이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동시에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급진전시킬 경우 러시아가 향후 치러야 할 비용과 리스크에 대한 지적 역시 제기되었다. 즉, 러시아 정책 그룹 내에서는 북한과 관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칙론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적으나, 무기 기술 이전을 비롯한 북한과 군사협력 강화, 북핵 인정

2) 러시아 외무성은 특별 담화에서 조약 비준과 관련하여 "조약은 양국이 우선시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키고 정의로운 국제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러시아와 북한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조약은 어떠한 대결적 성격을 띠지 않고 제3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며 동북아시아의 안정 유지를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및 관련 기술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노정되었다.

향후 북・러 군사협력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주도권이 러시아에 있다고 볼 때, 러시아의 전략적 인식과 고려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러시아 정부 측의 공식적인 언급 분석만으로는 충분치 않은바, 러시아 정책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나 주장은 러시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와 고려사항을 판단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는 지난해부터 러시아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온 대북 군사협력과 관련한 러시아 내부 담론에 대한 관찰・분석에 기초하여 러시아의 인식과 러시아의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및 고려사항을 평가하고자 한다.

Ⅱ. 러시아의 대북 재래식 전력 협력 수위와 속도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러 관계가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급진전하게 된 시작점에는 여러 국내 정책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기존의 악화 일로를 겪어왔던 러시아의 대미 관계는 물론, 유럽과의 최소한의 실용적 관계까지 사실상 회복 불능 수준에 들어섰다. 향후 오랜 기간 러시아는 한층 선명한 반서방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북한의 판단이 빠르게 섰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여러 유엔 결의안 표결이나 자체 논평에서 철저하게 러시아를 지지했다. 이에 러시아 내에서는 북한의 전폭적인 지지에 상응하는 대접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나오기 시작했다.[3] 여기에 2023년 한층 강화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맞대응 요구 역시 내부적으로 커졌다.

이러한 러시아의 새로운 대북 인식은 지난해 7월 쇼이구 장관의 방북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표면화되었다. 냉전 해체 이후 러시아가 거리를 두어 온 북한의 이념적 기념일인 전승절에 러시아 국방장관의 공식 참석 자체도 상징적이었으나, 러시아 국방부가 쇼이구의 방북이 북・러 간 군사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논평함으로써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협력 의지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로부터 두 달여가 채 안 되어 9월 보스토치니에서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내에서는 북한과 군사협력의 당위성에 관한 주장과 방안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되었다. 주장의 내용도 우크라이나 전장에

3) 이러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재인식은 지난 6월 푸틴의 평양 방문 시기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되었던 기고문 「러시아와 북한: 오랜 세월을 이어온 우정과 협력의 전통」에서 푸틴이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과 관련한 북한의 견고한 지지, 주요 국제문제에서 보여준 연대, 유엔 플랫폼에서 공동의 우선순위와 입장을 견지해 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라고 한 대목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쓰일 북한의 소모성 무기 공급을 환영한다는 차원에서 한・미・일 연대에 맞서기 위한 북한과의 동맹 불가피론까지 다양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과 관련한 북한과 군사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그룹은 전쟁 장기화가 예상되고, 서방과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과 군사협력 강화는 더 망설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기술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다수 제기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엄청난 제재와 압박에도 자체 기술을 개발한 역량이 있는 나라로서 이런 북한과 기술협력은 러시아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었다.[4] 일부 군사전문가는 러시아가 전쟁 중 단기간 내에 해결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 해결에 북한이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군사기술 협력 파트너로서 북한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는데,[5] 이는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기술을 받는 부분에만 촉각을 세우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양국 간 포탄 거래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던 지난해 시점에도 바라네쯔(Victor Baranets)를 비롯한 여러 러시아 군사전문가는 전장에 필요한 소모성 무기에 대한 협력 추진을 주장했다. 북한은 상당량의 탄약과 전술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로 북한의 155mm 포탄, 자주포 모두 러시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종전 후에도 서방의 대러제재 해제가 요원한 상황에서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들과 군사 협력관계를 최대한 구축하는 것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용적 측면을 강조한 이들은 북한에 포탄 등 소모성 무기 외주를 줌으로써 러시아는 불필요한 증설을 하지 않아도 되며,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 기술, 산업자재, 원자재 등으로 보상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6]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작년 8월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컨테이너 1만 3천여 개 이상에 해당하는 포탄・미사일・대전차 로켓 등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분석했고, 11월에는 북한 자주포와 방사포 지원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11월 14일 김정은의 자폭용 드론 생산 확대 지시도 러시아에 대한 공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때, 소모성 무기를 북한에 외주하는 무기 생산체계 공급망을 만들자는 러시아 군사전문가들의 아이디어는 전쟁 장기화와 함께 현실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스크바대 아시아・아프리카 학부 마슬로프(Alexey Maslov) 학장과 한반도 전문가 예브게니 김(Evgeny Kim) 외 주류 전문가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1992년 이후 중단한 대북 재래식

---

4) Владимир Шаповалов. “Встреча Путина и Ким Чен Ына: о чем договорились лидеры КНДР и России?” Партия 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 ЗА ПРАВДУ.
5) Ольга Божьева. “Эксперт Федутинов оцени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аналоги американских дронов. Опыт КНДР может быть очень полезен российскому авиапрому.” MKRU.
6) Tsargrad. “Скрытый смысл встречи Ким Чен Ыны и Путина: Корейская суперракета не даёт покоя США.” Tsargrad.tv.

무기 현대화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어 왔는데,[7] 이번 북한군의 파병으로 그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베트남 참전을 계기로 미국의 지원 하에 재래식 무기체계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었다고 알려진바, 이번 러시아 파병을 통해 북한군도 한참 뒤처진 재래식 무기체계 현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러시아 군사전문가들은 북한과 군사동맹을 통한 방공망 공유, 해군 통합 등 다양한 실질적 방안을 제안했는데, 그러한 필요성으로 러시아 북극항로를 지키는데 북한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강조되기도 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항로 상용화와 자원개발 및 군사 기지로서 북극의 활용 확대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러시아의 미래전략에 북극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북극항로 동쪽 관문을 지켜준다면 이는 분명 러시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8]특히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오커스(AUKUS)의 핵추진잠수함이 북극항로 입구까지 진출할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견제도 러시아의 북한과 군사협력 방향에 고려될 수 있다고 보인다.

러시아가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노획한 나토 무기를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북한의 무기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된 바 있는데, 이번 쿠르스크 전투 참여를 통해 북한군이 나토 무기를 접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나토 무기 분석 기회를 준다면 이는 북한군의 무기 기술 개발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상기 실용적 차원 이외에 다수의 러시아 국제정치학자는 구조적 현실주의 측면에서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합의로 동북아 질서가 크게 바뀐바, 소위 '아시아 나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과 군사협력 고려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북한,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바, 북・러 간 군사협력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논리이다.

극동연방대 루낀(Alexander Lukin) 교수는 현재 북한과 러시아가 처한 상황상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는 필연적임을 주장했는데, 이는 북한의 안보 인식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또 대북 군사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루낀은 북한이 기존의 자주 노선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예측 불허성이 자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북한이 인식한다는 점, ▲ 과거 북한은 강대국 간 갈등 속에서 나름의 게임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해

7) RTVI. "Зачем Москв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и чем тут Китай и есть ли у России будущее на Востоке?" Хроники нового мира RTM.
8) News.ru. "Политолог Перенджиев: России нужен военный союз с КНДР для защиты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News.ru.

왔으나 최근 미・중 경쟁 구도에서는 그러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9]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북한의 안보가 열세에 놓여 있다는 점, ▲핵무기가 북한의 안보를 온전히 담보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체계는 러시아 기준으로 50년 전 수준인데 북한은 이를 자력으로 업그레이드할 만한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루낀은 북한이 처한 이러한 구조적 현실은 북한이 혼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와 동맹 형성이라는 유일한 선택지를 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중국은 한반도에 '종주국 행세'를 했던 역사적 과거로 인해 북한이 파트너로 선호하지 않으며 중국도 (북한과의 군사적 동맹 강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 반해, 잃을 것이 없는 러시아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미국, 일본, 한국으로 구성된 아시아 '준 나토 트로이카(quasi-NATO troika)'와의 관계에 대해 기대가 없는 모스크바가 북한의 군사동맹 희망에 호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루낀은 러시아의 대북 재래식 무기 및 기술의 공급과 정보 공유, 그리고 합동 군사 훈련은 북한의 안보를 확연히 강화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마슬로프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강하고 안정된' 국가가 되는 것이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한 주장과 맥이 닿는바, 이는 러시아의 대북 관계 인식에서 새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실용적 측면에서나 당위적 측면에서나 필요하고 또 필연적이라는 러시아 내 인식은 2024년 6월 푸틴의 방북 중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라는 제도적 협력 틀 구축으로 구체화 되었다. 그리고 이번 북한군의 파병으로 북・러 관계는 동맹으로서의 실질적 단계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일정한 우려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향후 러시아의 대북 군사협력에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내에서 지적되는 문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요지로 정리된다.

첫째, 러시아가 북한에 재래식 전력 관련 기술을 제공한다면 북한은 역설계를 통해 기술을 복사하여 세계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10] 이러한 우려는 소련 시절과 냉전 해체 후 30여 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러시아는 북한을 통제할 수 없으며 북한은 자신들의 당장의 이익을 위해 어떤 배신행위도 마다치 않는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신의와 예측 불허성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은 북한에

---

9)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중국과 경쟁을 위해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이격시키는 것의 효용성을 크게 느끼지 못함에 따라, 북한과 대화에 관심이 줄었는데 이것이 평양이 자구책에 나설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이다.

10) Novayagazeta, "Деньги, блеф и никаких технологий. Зачем лидеру КНДР показали российский ВПК" Novayagazeta.ru.

대한 군사기술 지원에 고려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북한 체제의 생존과 안정에 장기적 활로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면 '값싼 배신행위'로 러시아의 신뢰를 깨는 일은 자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과거의 북・러 관계의 관행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무기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교환물의 등가성이다. 군사기술이라는 것이 금액으로 따지자면 매우 고가의 것인데 웬만한 교환물로는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실 러시아가 어떤 반대급부를 북한에 기대할 수 있는가는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와 서방 간 '차가운 평화'라도 유지되었던 시기에는 어떤 교환물로도 등가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겠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이나 동북아에서 미국과 대치 전선의 구조화라는 더 상위의 전략 차원에서 북한을 미국에 대한 '위협과 억지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등가성은 충족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지정학적 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반대급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쿠르스크 전투에서 북한군의 전사자가 다수 발생한다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피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우크라이나군을 러시아 영토에서 몰아내는 데 북한군이 실질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될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현대적 무기 제공과 특정 기술 이전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러시아의 북한 군사력 증강 지원에 대해 중국이 반대할 것인바, 이는 북・러 간 군사협력의 진전에 가장 큰 한계 요인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11] 이러한 중국 요인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국의 우선권을 인정해 온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해 보이며 실제 향후 전개에 주요 변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러시아로서는 북한과 군사협력 추진에 있어 중국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그 속도와 수위, 무기 종류 문제를 최대한 조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북한군의 파병에 관해 중국이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앞으로도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사활 문제라고 인식하는 안보적 사안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선집행하고 사후 중국에 설명하려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러 간 일정한 불편한 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다. 동시에 북한 문제를 둘러싼 중・러 간 갈등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12]의 학술

11) Tertitskiy. F. "Is North Korea Set to Become Russia's Ally Following Shoigu's Visit?"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2)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은 외무성 장관이 이사회 임원으로, 크레믈린 대변인과 외무성 차관 등 정부의 현직 주요 인사들이 상임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 외교정책의 외곽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총괄 코르투노프(Andrey Kortunov)가 '자국의 자주권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 온 북한'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 모두 어떤 통제권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바, 북한 문제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조율해가야 하는 사안 중 하나라고 한 평가도 타당해 보인다.

넷째, 러시아의 과도한 대북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좁혀 한·미 동맹 강화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또 다른 빌미가 되거나, 한·러 관계 복원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이다. 실제 푸틴을 비롯하여 러시아 외무성 고위급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러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중에도 한국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지속적으로 피력한 바와 같이 러시아가 대북 군사협력 관련한 주요한 결정을 할 때 한국 관계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라는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다섯째, 민감한 부분에서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리스크'이다. 한반도 전문가 아스몰로프(Konstantin Asmolov)가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기술협력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거부의 마지막 단계로 상정한 것과 같이, 러시아는 당분간 대북 군사기술 지원 '가능성 시사'를 대미 압박 수단으로 최대한 사용하되 이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북한에 특정 기술 이전을 결정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할 것이다. 관련하여 아스몰로프는 러시아 내에는 북한과 협력 확대가 러시아에 필요하고, 현행 유엔 대북제재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측면에서 러시아가 제재에서 이탈하는 것도 합리적 선택이라는 견해도 러시아 내 다대하나, 현재 모스크바는 이를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울의 한쪽에는 북한과 협력 확대로 인한 이익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상실이라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통과에 참여한 대북제재 규범을 노골적으로 어길 경우, 이는 정기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안보리 퇴출이라는 여론을 촉발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른 러시아 학자들도 북한과 협력 확대는 중요하나,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누리는 특권은 러시아에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상술한 러시아 내 인식을 볼 때, 러시아의 북한과의 재래식 전력 분야 협력 강화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인식,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상황,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신뢰도, ▲중국의 입장, ▲종전 이후 한·러 관계 회복에 대한 러시아의 기대치나 필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에 대한 리스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북핵 인정 및 핵전력 기술 지원 문제

북・러 군사협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러시아의 북핵 인정 및 북한에 대한 핵전력 관련 기술지원 여부이다.

지난해와 올해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러시아 측의 발언과 행보가 이어졌다. 푸틴이 올해 3월 중순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추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인 바 있다. 지난 9월 26일에는 라브로프 장관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는 지역 안보에 대한 "실질적이고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모든 의미를 잃었으며 북한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closed issue)"라고 언급했다. 동 발언은 같은 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직후에 나왔다.

이스라엘이 핵 보유에 대한 정치적 승인을 미국으로부터 얻은 것처럼, 북한도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유사한 정치적 승인을 얻는 것이 북한의 핵심 추구전략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하고 비핵화 논의가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북한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러시아가 북핵을 공식 인정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러시아 전문가 사이에 주류를 이루는 견해이다.

코르투노프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을 '핵클럽'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핵 관련) 협상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되 이는 해결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장기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최후통첩할 처지가 아닌 상황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접근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르투노프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크렘린은 북핵을 공식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시점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해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1년 전 김정은이 '국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써 핵무기의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명시한 새로운 북한 헌법을 채택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한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안보 구도 변화는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갈 여건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있다고 주장했다.[13] 즉, 코르투노프는

13) Kortunov, A. "How Far Will the DPRK-Russian Cooperation Go?"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러시아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 논의과정 속에서 북한 군축 협상도 시도할 것으로 보는 것인데, 실제 이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선택지로 보인다.

북・러 군사협력에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핵전력 관련 고급 기술 이전 가능성 문제는 그 사안의 파장 상 국제사회가 가장 촉각을 세우는 사안이 되었다. 동 사안과 관련하여 러시아 외교협회 부회장 바끌라노프(Andrey Baklanov)는 러시아는 핵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줄 필요가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다분히 서방에 대한 블러핑(bluffing) 성격이 커 보이나 러시아가 어떠한 전략적 사고 속에서 북한을 미국에 대한 억지 수단으로 보고 있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바끌라노프는 (미국의 위협에 대한) 극동지역 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가 큰데, 여기서 북한이 1962년 쿠바 위기 당시의 쿠바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한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모스크바에서 불과 몇 km 떨어진 유럽에 배치된 미사일로 인해 러시아가 느끼는 불안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다. 바끌라노프는 두 강대국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부상하고 있으며, 북한을 통해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14)]

러시아 군사전문가 가운데는 북한과의 핵전력 통합 주장도 있으나 정치학자 가운데 바끌라노프와 같이 북핵의 전략적 활용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코루투노프도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돕거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러시아의 오랜 입장을 급격하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또 어떤 형태로든 핵확산이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1970년대 당초 프랑스의 핵 개발을 반대했던 미국이 프랑스의 비핵화는 이미 늦었다는 판단하에 전략적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 프랑스에 은밀히 기술완성을 지원해 준 사례를 들며, 러시아도 유사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15)] 나아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러시아가 지원하면서 일정한 운용 및 통제권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ICBM이나 핵추진잠수함 관련 민감기술 이전과 핵보유 인정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NPT 체제의 설계자로서 ▲전략 균형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고, ▲소수 핵보유국의 독점적 지위 유지를 원하며, ▲북한의 핵무장을 원치 않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북한 핵전력 완성으로 인한 동아시아 내 핵 도미노를 우려한다는

14) Aljazeera. "Are Russia and North Korea forming a new alliance?," Inside Story: aljazeeraenglish.
15) 황일도, "북・러 군사협력 논의와 평양의 지향점: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도전,"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측면에서 동 사안은 러시아에 분명 쉽지 않은 결정으로 매우 복잡한 계산을 요구할 것이다.

향후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 구도가 더욱 첨예해지거나 어떤 다른 정세 판단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 핵전력 기술을 이전한다고 해도 이는 공개될 리 만무하며 우리는 이를 미국의 프랑스 핵 개발 지원 사례나 러시아의 대중국 군사기술 이전 사례처럼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Ⅳ. 전망

북한과 군사협력 강화가 필연적 대세라고 주장한 루낀도 러시아가 북한과 관계를 소련과 북한 간의 1961년 동맹조약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푸틴은 지난 6월에 체결된 북・러 조약이 1961년 조약의 부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대북 군사협력에서 가장 그 가능성을 낮게 보았던 것이 북한군의 파병이었다. 언어 장애, 북・러 간 합동군사훈련 경험의 부재로 인한 지휘체계 혼란 등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많았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과 점령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발생하긴 했으나, 푸틴과 김정은의 결정은 전문가들의 상상을 뛰어넘으며 매우 신속하고 과감했다. 향후 북・러 군사협력이 푸틴이 최근 언급한 합동 군사 훈련을 넘어 러시아 핵잠수함의 원산항 기항, 방공망 통합과 같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다.

푸틴의 대외정책 책사로 알려진 카라가노프(Sergei Karaganov)의 평가처럼 종전 후에도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 회복은 수십 년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 대외정책의 핵심 과제는 이번 전쟁 과정 중 러시아에 대해 우호적 내지는 최소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온 국가들과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 관계 구축이 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러시아는 북한과도 정치, 경제, 국제적 현안 관련 입장, 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의 틀을 구축하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에도 일정한 대가와 역풍의 여지를 안고 있는 대북 군사협력의 수위와 속도는 전술한 여러 부정적 측면을 고려한 복잡한 계산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분명한 점은 러시아의 대북 군사협력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 가운데서도 연일 격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앞으로의 미・러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이다.

외신에 의하면 푸틴이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까지 쿠르스크 지역의 완전한 수복을 명령했다고 알려졌다. 만약 러시아가 자국 영토 쿠르스크 지역 탈환에 성공한다면 러시아는

한층 우위적 입장에서 평화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해 트럼프 취임 후 있을 수 있는 종전 협상 개시 전까지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받더라도 쿠르스크 수복을 시도하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이어질 경우, 이것이 북・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전투에까지 북한군을 투입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현행 국제법상 타국 영토에서 수행되는 전투에 북한군까지 투입할 경우, 러시아가 의식하는 중국・인도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의 상식에 비추어진 여론과 당면한 자국의 전쟁 승리라는 목표를 두고 저울질을 하게 될 것이다.

내년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도로 종전 내지는 휴전 국면이 형성될 경우, 이것이 러시아의 대북 군사협력 속도와 수위를 조절할 요인으로 작용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미국 내 정통 관료들의 저항과 유럽 동맹과 관계 등으로 트럼프가 집권 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매우 상징적 사건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실제 공약과 같이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미 의회 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6백 14억불($61.4bn)에 해당하는 지원 예산안을 공화당이 저지하도록 트럼프가 실제 막후 지휘했고, 전쟁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도 “젤렌스키는 이 전쟁이 시작되지 않도록 해야 했었다”라고 발언한 바와 같이 동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시각과 입장이 상당히 일관되고 분명한바, 트럼프는 종전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 인수위에서 논의되는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과 일정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북한군 파병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집권 2기 트럼프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트럼프와 푸틴 간 물밑 협상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향후 있을 수 있는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러 간 물밑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이 패싱(passing)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신 행정부 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소통 유지 노력도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이상근, 「북・러정상회담의 결과와 파급영향」, 『이슈브리프』, 465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이태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대(對)북 인식 변화: 동인, 특징, 쟁점」, 『국제지역연구』, 제28권 제3호, 2024.

이태림, 이상숙, 「2023년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지역 정세 전망」, IFANS FOCUS, 외교안보연구소, 2023.

장세호, 김성배, 최용환, 「러-우 전쟁 이후 북・러 밀착: 현황과 전망」, 『INSS 전략보고』, No.220,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최정호, 이희선, 「2023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4년 전망」,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7 No.2, 2024.

황일도, 「북・러 군사협력 논의와 평양의 지향점: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도전」,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현승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관계」, 『KDI 북한경제 리뷰』, 2023년 11월호, 2023.

Aljazeera, "Are Russia and North Korea forming a new alliance?," *Inside Story: aljazeeraenglish*, Septemeber 9, 2023.

Asmolov, K., "Russia and North Korea Ready to Cooperate in a Big Way,"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July 1, 2024.

Gubin, A., "The East Expands into NATO: Japan's and South Korea's New Approaches to Security,"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August 11, 2022.

Kortunov, A., "US — Japan — South Korea Military Cooperation Pushes More Rigid Bipolar Security Arrangement in Northeast Asia,"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September 27, 2023.

_____, "How Far Will the DPRK-Russian Cooperation Go?,"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November 7, 2024.

Lukin. A., "North Korea: The End of Strategic Seclusion?," *Russia in Global Affairs*, No.1 2024 January/March, 2024.

Tertitskiy, F., "Is North Korea Set to Become Russia's Ally Following Shoigu's Visit?"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ugust 1, 2023 Discussion.

Vorontsov, A., "Reincarnation of the USA–Japan–South Korea Triangle," *Valdai Club*, August 23, 2023.

Асмолов, К.,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отношений РФ и КНДР,"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2024. 4. 23.

Божьева, О., "Эксперт Федутинов оцени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аналоги американских дронов. Опыт КНДР может быть очень полезен российскому авиапрому," MK.RU, 2023. 7. 28.

Новиков, Д., "Ядерный союз, военная помощь: зачем Шойгу летал в КНДР на самом деле," Turbopagesnews, 2023. 7. 29.

Перенджиев, России нужен военный союз с КНДР для защиты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News.ru, 2023. 7. 29.

Шаповалов, В., "Встреча Путина и Ким Чен Ына: о чем договорились лидеры КНДР и России?" Партия 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 ЗА ПРАВДУ, 2023. 9. 14.

Novayagazeta, "Деньги, блеф и никаких технологий. Зачем лидеру КНДР показали российский ВПК," Novayagazeta.ru, 2023. 9. 16.

RTVI, "Зачем Москв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и чем тут Китай и есть ли у России будущее на Востоке?," Хроники нового мира RTVI, 2023. 9. 19.

Tsargrad, "Скрытый смысл встречи Ким Чен Ыны и Путина: Корейская супер ракета не даёт покоя США," Tsargrad.tv, 2023. 9. 14.

Парламентская газета, "О чем договорились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 Ким Чен Ын," Парламентская газета, 2023. 9. 13.

Kremlin, "Участникам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собрания, посвящённого празднованию 70-летия побед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 Отечественной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й войне 1950–1953 годов," kremlin.ru, 2023. 7. 23.